



청송심씨 심벌마크

# 青松沈氏宗報

발행인 : 대종회장 심상조  
편집인 : 문화이사 심상억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찬경회관5층  
전화 : (02)2267-7857  
(02)2267-9339  
FAX : (02)2269-7755  
인쇄 : J.M미디어  
(02)2267-9646

격월간 제161호(1955년 7월 5일 창간)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23년 5월 31일(수)

## 제7대 대종회 회장에 심상조 재산관리위원장 추대

### 2023년도 제53회 정기총회 성황리에...전국에서 290여명 참석



제53회 정기총회 장면(4월 27일)

청송심씨대종회(회장 심대평)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31. 성균관컨벤션웨딩홀에서 제5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전국에서 청송심씨 후손 29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2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안 승인, 202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 의결 및 임원선출에 관한 건 등을 의결하였다.

한편 제6대 대평 회장이 임기가 끝남에 따라 상조 대종회 재산관리위원장

이 차기 제7대 대종회 회장에 선출되었다.

5년간의 회장 임기를 마친 대평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고, 부회장 15인과 감사 3인 및 이사 195명은 모두 연임되었다. 다만, 결원이 발생한 이사 55명에 대해서는 대종회 및 지파총회의 추천을 받은 청장년층 및 여성(따남)을 신입이사로 총원하였다.(관련사진은 2, 3, 4면에)

## 6세조 양혜공 재각 준공식...전국에서 200여명 참석



청송심씨인수부윤공파총회(회장 심재구)에서는 5월 9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41-5에 건립된 6세조 양혜공(良惠公, 石堉) 재각 양혜재 준공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재각은 목조 전통한옥 40평 규모로 총공사비 8억7천4백여만원을 들여 2020년 3월 27일 착공하여 같은해 10월 31일 완공하였으나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 준공기념식이 연기되어 왔다.

이날 기념식에는 인수부윤공파총회 정구 명예회장, 재구 회장, 전남 곡성종회 명섭 회장, 울산내금위공파총회 규화 회장 등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200여명의 일가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진행되었다. 청송 심문을 명문가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고 오늘날의 번성을 누리게하신 양혜공 선조님의 재각 건립을 통해서 일가간 송조돈목의 마음을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선인제성(宣仁齊聖) <소헌왕후> 청송에서 부활하다!

5월 26일 청송 소헌공원에서 청송군문화관광재단 주최 '청송군 개군 600주년 기념 <소헌왕후 스토리텔링>' 행사가 개최되었다.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작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세종 즉위년 1418년 소헌왕후의 청송심씨 관향으로서 그 격에 맞추어 청송지역을 승격시키는 일이 추진되었고, 1423년 '청송군'으로 개칭되었다.

조선 세조 5년(1459년) 어머니 소헌왕후의 관향이란 이유로 인구 1천명도 안되는 청송지역을 437년간 '청송도호부'로 유지하였고, 이와 관련한 전설과 문화유적이 청송군에 산재해 있다.

청송군문화관광재단은 올해 개군 600주년을 맞이한 해로 소헌왕후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소헌공원(청송 찬경루 등)에서 스토리텔링 퓨전 국악 콘서트를 진행하였다. 이에 소헌왕후의 아버지 5세조 안효공(휘 溫)파총회(회장 무섭) 동생 6세조 공숙공(휘 澮)파총회(회장 총택)와 정이공(휘 決)파총회(회장 석산), 일가분들이 참석하였으며 참가용 선물을 협찬하였다. 청송군은 매년 소헌왕후와 관련한 지역 스토리를 발굴 및 개발하여 지역특화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왼쪽부터 주한 영동정공유사, 충현 광주부윤공파선산총회 총무, 규정 재무이사, 음식 안효공파총회운영위원, 재금 前김포한강신협본점이사장, 정미진 청송군의원 (심부섭 파친면장부인), 상휴 청송군의원, 윤경희 청송군수, 연촌 안효공총회 부회장, 영섭 안효공총회 부회장, 상억 총무이사, 우섭 안효공총회 부회장, 원섭 안효공총회 총무, 규섭 오산사복시정공총회 총무, 상관 안효공총회이사.

# 선조님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청송심문 종재, 정직하게 운영하겠습니다.

## 제7대 심상조 회장 취임사

제7대 대종회 회장직무를 맡게 된 23세손 相祚 인사드립니다. 오늘 정기총회에 참석하신 일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상조 회장

국내외 30만 靑松沈門 여러분!  
제7대 대종회 회장직무를 맡게 된 23세손 相祚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대종회 이사로서만 참여하다가 심대평 회장님 취임과 더불어 발전위원,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이사, 그리고 한마음대회 집행위원장을 맡아 5000여명의 일가분 앞에서 영광스럽게도 '2019년 한마음대회 개회선언'을 했습니다.

2020년에는 재산관리위원장을 맡았는데, 급기야 오늘 일가분들의 추대로 대종회 회장에 취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경향각지에서 함께 해주신 일가 여러분!

50여년의 오늘날 대종회 역사는 자랑스롭습니다.

당시 검사장 성택 초대 회장님께서 청송심씨대종회를 창립하시고, 2대 명구 회장님은 무려 28년 동안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초석을 다지셨고, 그리고 3대 두섭 회장님, 4대 의락 회장님, 5대 갑보 회장님께서도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반석위에 올리셨습니다. 전임 大平 회장님께서도 대종회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초유의 한마음대회 개최를 통해 800년 沈門 역사의 뿌리정신을 일깨우고, 沈門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대내외에 천명하셨습니다. 이제 대종회가 국내외 30만 청송심문의 명실상부한 구심체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일가간에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가 여러분!

大平 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공적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결의와 의지를 담아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오늘 7대 회장직에 취임하면서 역대 회장님들의 희생과 봉사정신을 계승하며 소명을 갖고 우리 沈門의 역사와 미래가 공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조 문림랑공(諱 洪孚)의 덕업을 추모천양(追慕闡揚)하고 묘소수호 및 종중재산의 관리와 존조수족(尊祖收族)의 정진을 함양진흥케하는데 힘쓰고, 일가 간 화합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大平 회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오신 4세조 정안공-악은공 형제분의 역사찾기는 심문의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동을 거점으로 한 학술세미나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영재육성과 뿌리정진 함양사업은 계승발전시켜 청송심문의 역사와 전통이 미래에도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문중의 자랑인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육성발전은 대종회가 중심이 되고 지파총회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확충에 매진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방연구 대학생들의 상경 진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청송심문 학사' 건립에도 지파총회와 더욱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셋째, 전임 회장님께서 추진하신 대종회 사무실 이전과 심문역사박물관 건립은 100년 대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종회 사무실 이전은 전문가 집단지성을 모아서 목적과 기대효과, 접근성, 미래지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靑松沈門의 家門을 빛낸 선조분들의 사적과 유물 등을 길이 보전하고, 뿌리교육의 산실이 될 수 있는 '심문 역사관' 건립을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넷째, 대종회 자신은 선조님께서 피와 땀으로 일군 심문 모두의 총유물입니다. 정직한 마음가짐으로 종재관리와 회계업무가 투명하고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확고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자금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뿌리 깊은 나무가 꽃도 좋고 열매도 좋습니다. 인터넷족보는 심문의 자랑스런 기록입니다. 국내외 30만 沈門 모두가 '족보있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수단작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과제들은 우선 순위와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장단 회의와 고문회의 심의의결,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얻은 연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일가 여러분!

올해는 제2회 한마음대회 개최가 계획된 해입니다.

새로운 비전과 도약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희망찬 한마음대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국내외 일가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정기총회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일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국내외 30만 靑松沈門 가족여러분의 건승하심과 가정에도 만복이 깃들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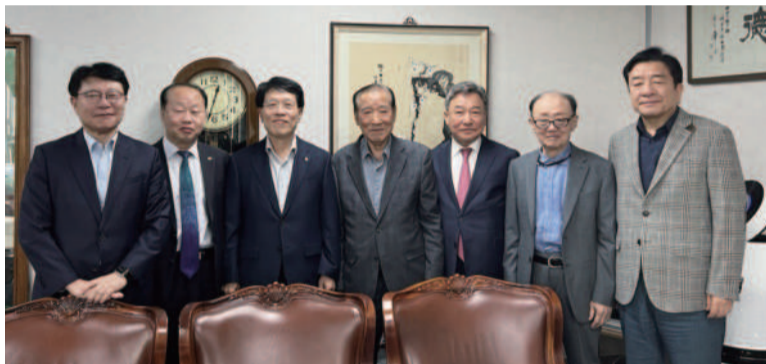
청송심씨대종회 회장 심 상 조

## 제7대 신임 대종회장 선임까지...



제71회 이사회 만장일치 추대(4월11일)

4월11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성균관컨벤션웨딩홀에서 제71회 이사회에는 경향각지에서 참석한 이사 70명과 100여명의 위임을 받아 이사회 성원이 되었다. 이날 대종회 회장단의 추천을 받은 심상조 재산관리 위원장을 제7대 대종회 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 의결했다.



심상조 회장, 심정구 문장님 예방 (4월18일)

이사회에서 추대받고 정구 문장님 예방... 왼쪽부터 심중식 선광대표이사, 심상익 문화이사, 심장식 선광 회장, 심정구 門長님, 심상조 회장, 심중식 대표, 심관식 동화E&C 대표이사



제53회 정기총회 만장일치 선임 (4월27일)

제53회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심상조 재산관리위원장을 제7대 대종회 회장으로 선임했다.

### <심상조 신임 회장 대종회 기여도>

- 2023.4.27. 제7대 대종회 회장 취임
- 2020.10. 대종회 재산관리위원장
- 2019. 8.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이사
  - ▶ 장학금 기부 2020년 500만원, 2021년 500만원, 2022년 500만원
- 2019. 7. 한마음대회 집행위원장
  - ▶ 2019년 제1회 한마음대회 협찬 2,000만원
- 2018. 7. 대종회 발전위원

### 대종회 발전방안 8대사업 선정 주도



앞줄 왼쪽부터 두 번째 심상조 회장...2018년 발전위원회 창립 당시 모습(2018.7.6)

# 대중회 회장직을 떠나면서...



정구 문장님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으신 대평회장(왼쪽)

경향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일가여러분!

2023년도 제53회 정기총회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덕분에 5년의 회장 임기를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회장단과 250여 명의 이사님을 비롯한 국내외 30만 일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을 회고컨대, '沈門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직접 체감하는 기회였습니다. 역사상 어느 가문 어느 문중에서도 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 청송심문이 해낸 일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2019년 10월 5천여 일가가 시조 묘하에 모여 추향제례를 올린 한마음대회입니다. 초유의 문중행사를 통해 한층 더 화합하고 단합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일본 심수관 15대가 424년만에 직계선영을 찾아 고유제를 올린일입니다. 세계 어느 지역이나 어느 민족도 400년 넘게 타국에서 온갖 박해를 이겨내며 자국적과 자신의 성씨와 가문을 지킨 사례는 있지 않습니다. 오직 청송심문의 후손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뿌리도 찾기도 이끌어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인재육성을 위해 청심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뜻있는 일가분들이 모여 세계적인 인재를 발굴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3명의 장학생에 불과하지만 人才의 면면이나 설밭에서부터 지원까지 어느 가문, 어느 장학회도 흉내 낼 수 없는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문 후손과 외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세계 지도자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합니다.

일가여러분!

이제 대중회는 참신하고 유능한 뉴리더가 필요합니다.

7대 대중회 회장은 23세손 "상조" 자산관리위원장이 맡게 되었습니다. 신임 회장님께 축하와 응원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신임 회장은 기업인으로서 자수성가하였고, 전문건설협회 서울시 회장으로서도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상조 회장께 무한한 신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2023년 4월 27일

청송심씨대중회 제6대회장 심 대 평

## 沈大平 會長讚

### 심대평 청송심씨 대중회장님을 찬양함

- 普光山氣湧栗亭 / 보광산기 용울정  
- 청송 보광산(시조)의 정기가 (공주)울정리에 솟아나  
錦南面中大平里 / 금남면중 대평리  
- (공주) 금남면 대평리에서 (성장했네)  
繁出棟梁沈大平 / 번출동량 심대평  
- 나라의 인재 심대평회장이 출현하니  
安孝公後滿獻孫 / 안효공후 청헌손  
- 안효공 후예요, 청헌공(택현)의 손이라
- 大田名門大田高 / 대전명문 대전고 - 대전의 명문 대전고와  
國際名門서울大 / 국제명문 서울대 - 국제명문 서울대를 나왔네  
行試及第輝門中 / 행시급제 휘문중 - 행시 합격하여 문중을 빛내고  
忠南道伯十四霜 / 충남도백 십사상 - 충남지사 14년에
- 似續妣祖沈會長 / 사속비조 심회장 - 조상의 대를 이은 심회장이요  
國會議員 沈大平 / 국회의원 심대평 - 국회의원 심대평이랴오  
龍纏川上五千宗 / 용전천상 오천종  
- 청송 찬경루 앞 용전천에 모인 5천여 종친들 모습에  
敬歎稱賀青松沈 / 경탄칭하 청송심 - 청송심씨를 경탄하고 칭송하네
- 爲國獻身牧民官 / 위국헌신 목민관 - 나라위해 헌신하신 목민관으로서  
修身省察一平生 / 수신성찰 일평생 - 일평생 수신하고 성찰을 했다네  
國政宗事皆渾身 / 국정종사 개혼신 - 국정과 종사에 힘을 쏟았으니  
功勳德業承先志 / 공훈덕업 승선지  
- 공훈과 덕업이 선조를 계승한 것이었네  
萬古清業太山嶺 / 만고청업 태산령  
- 오랜 세월 쌓은 그 훌륭한 업적들 태산처럼 높고  
異口同聲清白吏 / 이구동성 청백리 - 모두가 청백리라 칭찬한다오
- 喬木世臣沈大平 / 교목세신 심대평  
- 여러 대에 걸쳐 나라에 헌신한 가문의 심대평  
青松沈氏即兩班 / 청송심씨 즉양반 - 청송심씨는 양반이요  
兩班即是沈大平 / 양반즉시 심대평 - 양반인즉 심대평이랴  
爭先稱賀沈會長 / 쟁선칭하 심회장  
- 모두가 앞 다투어 심회장을 칭송하는구나
- 人生百年古來稀 / 인생백년 고래희 - 인생 100년 예부터 드문 일  
大平會長年年春 / 대평회장 년년춘 - 대평회장 해갈수록 건강하시어  
大平太平深泰平 / 대평태평 심태평  
- 평화롭고 태평하고 걱정없는 세상에서  
壽高豪氣老益壯 / 수고호기노익장  
- 오래오래 사시고 호방한 기상으로 더욱 강건하소서  
-- 癸卯(2023) 4월 14日 沈載錫謹撰及書  
-- 계묘년(2023) 4월 14日,  
심재석이 삼가 글을 짓고 글씨도 쓰다.( \* 7언 26행=182자)

### 심대평 회장님, 다음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앞줄왼쪽부터 심상조 대중회장, 심재권 전 국회 외통위원장, 심대평 전 대중회장, 심상균 부산 경총회장,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심상정 국회의원, 뒷줄왼쪽부터 심규정 재무이사, 심언태 총무이사, 심달훈 전 중부국세청장,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 심영철 수원대 교수, 심중식 선광 대표이사, 심오택 전 국무총리비서실장, 심상돈 스타키보청기그룹회장, 심상덕 한라대 이사장,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 심재돈 변호사,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심상억 대외협력실장, 심규선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스폰=심상균 부산 경총회장, 2022.5.17)

### 2023년도 제53회 정기총회 이모저모

청송심씨대종회(회장 심대평)는 3월 22일 서울역 맞은편 LG빌딩 지하1층 만복림에서 대종회 회장단회의를 소집하였고, 다음달 4월 11일(화)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31. 성균관컨벤션웨딩홀에서 제71회 이사회, 같은달 27일(목) 같은 장소에서 제5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 개회선언



제6대 심대평 대종회 회장

#### 국민의례



대종회 발전유공자 공로패 수여



2022년도 최고액 장학금 기부 공로패 심호 전 감사원교육원장(대리 심의보 장학회 운영위원)



2022년도 최고액 장학금 기부 공로패 심대실 이사(왼쪽)



연못조성 심진섭 회장 공로패 (기섭 6촌형이 대리 수상)

#### 제6대 심대평 회장 공로패 수여



청송심씨대종회 회원 일동 명의 공로패

#### 축하 꽃다발 전달



#### 정기총회 장면



회장단석



지파총회 회장석



# 6월 호국의 달, 심상우 의병장을 기리며...



2023년 3.1절 기미독립선언서 공약3장을 낭독한 심덕보 연천문화원 자문위원장 (심상우 의병장 증손)

심상우(沈相禹) 의병장 묘소는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에 있다. 2014년 12월 9일 연천군의 향토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되었다.

심상우 의병장은 13도 연합 의병부대 군사장 허위부대의 3분견대장을 맡아 휘하의 의병과 함께 일본에 맞서 치열한 전투에 참여하였다.

1883년(계미년)에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에서 부친 심응택(沈應澤)과 모친 양성 이씨(陽成 李氏) 사이에서 출생했다. 당시 일본이 운영하는 보통학교(마전공립학교)는 다닐 수 없다며 입학을 거부하고 마전향교에서 한학을 공부하다가 왕산 허위선생의 격문을 보고 선생의 휘하로 들어가 의병부대 제3분견대(파견대)장의 임무를 맡아서 관공서 습격 등 크고 작은 전투를 벌이다가 1908년 10월 15일 백석리 가루재(하우고개 주변 현 중앙추모공원 자리)에서 일본군과 전투 중 바위틈에서 일본군의 흉탄에 맞아 전사했다.

심상우 의병장의 시신은 당시 일제 감시의 눈을 피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으로 묘를 정했으며 전사 당시 26세로 미혼이었다. 후손이 없어 장조카인 심준섭씨가 묘지를 돌보고 관리했으며 묘소가 너무 허술한 것을 안타깝게 여긴 연천문화원이 묘지 보수와 함께 고인의 비석을 세우고 기일에 맞춰 제사를 지내왔다.

(글=심덕보 연천문화원 자문위원장)

# 선조님들의 송조돈목 (崇祖敦睦) 뜻을 기리며



인수부윤공파 27세손 심기좌(전주)

청수회(청송심문청장년회 모임) 전 북위원회에 가입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2019년 10월 5일 관향 청송에서 일가 5,000여명이 모인 “청송심씨한마음대회”를 계기로 청장년층이 모임을 결성하고 심문의 뿌리정신을 계승 발전시키

고자 활발하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선조님의 崇祖敦睦(송조돈목)의 뜻을 기리고, 일가끼리 우애와 배려를 실행하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넓은 시야와 심문의 긍지를 갖고자 조직화 되었다.

청수회 전북위원회는 초대 심관섭 위원장, 2대 심가영 위원장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50여명이 활발히 활동하는 모범 모임이다. 심가영 위원장은 “월별 찾아가는 청수회” 구상하고, 전북의 14개 시군을 방문하는 일정을 마련하였다. 당해 지역의 일가 분들을 찾아 뵙고, 선조님들의 발자취를 찾아 심문의 역사를 살펴보고 후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원활한 교류를 통해 ‘일가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킨다.

첫 방문지는 지난해 12월 “완주군” 탐방이었다. 완주 거주 두 일가분을 참여시키고 전북위원회 자체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등 심문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였다.

두 번째는 지난 1월 “무주”에서 1박2일의 단합대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초, 중, 고생 및 대학생 각각 1명씩을 선발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세 번째는 지난 2월 “군산”으로 약 660여년 전 도원수 심덕부 선조님께서 왜선 500여 척을 격파한 진포대첩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며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자 역사학자들과의 교류 및 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네 번째는 지난 3월 전북청수회 심양섭 부회장 생가가 있는 “순창”을 방문하여 회문산에서 문화체험학습과 함께 선조님들의 숨결을 느꼈다.

다섯 번째는 지난 4월 ‘고창’을 찾았다.

고창군수 심덕섭께서 ‘고창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천만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는 고창의 청보리 축제, 고인돌 유적지, 고창읍성 등을 관광하는 일정이었다. 청수회 전북위원회 주관으로 전국 청수회 일가분 약 100여명이 동행에 나서 아름다운 추억을 공유했다.

여섯 번째 는 지난 5월 ‘장미축제’가 열리는 “임실군”을 방문하여 심민군수와 함께 치즈테마파크 관람 등 심문일가의 친목을 다시한번 다졌다.

일가끼리의 만남은 축복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끼리 서로가 정담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즐기는 것이 곧 행복이다. 이를 위해 미력하지만 청송 심문과 청수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일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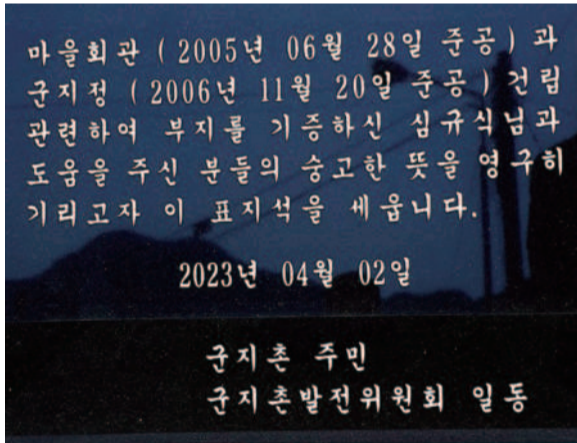
# 곡성군 심규식(沈圭植)일가분...토지희사 감동



심규식 일가분

지난 4월 2일 전남 곡성군 임면 재월리 군지촌마을에 「심규식 일가분 선행공적비」가 건립되었다. 이곳은 유서깊은 곳이지만 많은 분들이 출향한 지금은 약 2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다, 그중에 청송심씨는 7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심규식(사진, 74세) 일가분은 2005~2006년에 2년에 걸쳐 마을 주민들 이용 ‘군지촌회관’과 군지정(君池亭) 건립을 위해 본인의 토지 250평과 대지 50평 토



지(총 200평, 시가 3천만원 상당)를 희사하였다. 이에 군지촌 발전위원회와 주민들은 심규식 일가분의 선행을 기억하고 고마움을 표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입구에 공적비(사진)를 건립하고 제막식을 거행했다.

전라남도 곡성은 인수부윤공파 후손들의 세거지이고, 조선 중종 38년(1543년) 심광형 선조님이 이 지역 유림들과 풍류를 즐기기 위해 지은 정자인 ‘함허정(전라남도유형문화재 제160호, 1988년 3월16일 지정)’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제보=심현섭 전 쿠웨이트 한인회장)



심규식(앞줄 4번째)

## 가문을 빛낸 독립운동가 (4)

## 한말 유학자 심능표 선생 韓末 儒學者 沈能杓 先生



노호 심정섭(鷺湖 沈禎燮)  
수필가,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

안중근의 이등박문 포살 소식을 듣고  
聞安重根砲殺博文

일본의 못된 괴수 이등이란 도적을

日邦亂魁伊藤賊

손을 빌려 죽이려고 우리 땅에 보냈구나.

假手當刑遣我東

천둥 같은 의기의 회중포 소리

雷公義氣懷中砲

과연 이 혼만 날아 바다 건너 갔으리.

果是魂飛海上風

의향義鄉 보성 노루목에서 낙남조落南祖 면암 정공面巖亭公(심구沈溝, 1394-1493)의 유훈遺訓을 간직하면서 학문에 정진하니 그 주인공이 누구더뇨. 아! 모암 심능표 선생이여라. 선생은 전남 보성군 북내면 장천리 노루목에서 이조좌랑 吏曹佐郎 심구沈溝의 15대손으로 1871년 1월 1일 태어나 1954년 1월 1일에 별세한 한말 유학자였다.

호는 모암慕巖인데 한말 대제학 한장석韓章錫이 생육신生六臣으로 비유하고 항일지사 김영한金寧漢도 김시습金時習과 쌍벽을 이룬다고 극찬한 좌랑공의 호 면암정을 경모慕한다는 의미에서 모암慕巖이 나왔다고 한다.

비록 궁벽한 산골의 포의한사布衣寒士지만 풍전 등화風前燈火의 조국을 구하기 위해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의 이등박문 포살 소식을 듣고 시를 지으니 ‘안중근의 이등박문 포살 소식을 듣고聞安重根砲殺博文’이다.

‘나면서부터 영특하여 학문을 배움에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았고, 소학을 배우면서 응대지절應待之節과 효행의 도를 잘 실천하였으며 약관에 박섭경사博涉經史하여 과거에 수차 응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양재 권순명陽齋權純命이 선생의 묘지명墓誌銘을 지으면서 애석하게 여겼다.

심남일의 창의 소식을 듣고  
聞沈南一倡義

왜놈들이 우리의 소중한 침범하니

島夷猾我小中洲

강개한 사나이 격분할 때

慷慨男兒義激秋

말술을 마시고 붓 던지며 일어나니

痛飲斗醪投筆起

국가의 흥망이 한마음에 있다네.

國家興亡一心頭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을 지낸 역사학자 박은식朴殷植 선생은 ‘대체로 각도 의병을 말한다면 전라도가 가장 많았는데 아직까지 그 상세한 사실을 얻을 수가 없으니 후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호남은 일찍이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약무 호남 사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라는 천하의 명언을 남겼다.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이에 국가도 없었다는 말이고 보면 어찌 호남이 구국 의병투쟁에 수수방관袖手傍觀하고 오불관언吾不關焉하겠는가. 1908년 3월 심남일沈南一 장군이 함평에서 창의倡義하자 선생은 창의소에 서신을 보내고 시를 지으니 ‘심남일의 창의 소식을 듣고聞沈南一倡義’이다.

안담산 의사의 비석을 읽고  
讀安澹山義碑

공자 맹자 사서삼경 읽지도 못하였던

鄒魯經書曾未讀

들일하고 나무하던 머슴살이였는데

困於傭野採山人

의를 취해 인을 이름 어디서 배웠던고

成仁取義從何得

생기 얻은 무궁화가 천년 봄을 맞이했네.

生氣槿花千古春

일제는 소위 ‘폭도사暴徒史’를 통해 ‘전해산全海山, 안규홍安圭洪, 심남일沈南一을 전라남도 폭도의 거괴巨魁 중 첫째가는 인물’이라 적고 있다. 심남일 장군이 양반 출신이면 안규홍 장군은 서얼 출신이며 머슴살이였기에 ‘안담살이’라는 별칭이 있었다. 담살이는 전남지방에서 나이 어린 머슴의 호칭이다.

을사5적, 정미7적, 경술국적들은 소위 노론老論 양반 출신으로 입만 벌이면 ‘충효’나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외치던 그들이 일제의 충견忠犬이 되었지만 핍박받고 천대받던 서얼, 머슴살이 출신 안규홍 장군은 구국의 영웅으로 민족의 별이 되었으니 어찌 선생이 좌고우면左顧右盼 하겠는가. 살신성인殺身成仁한 안규홍 장군의 충혼을 노래하니 아! ‘안담산 의사의 비석을 읽고讀安澹山義碑’이여라.

이준의 절사 소식을 듣고  
聞李儁節死

살기도 곤게 했고 죽기도 곤게 하니

生於直理死當直

한 칼로 영원히 조국 위해 피 쏟았네.

一劍千秋血注東

우리 강토 삼천리 크나큰 이 천하를

疆土三千天下大

나라 운세 돌이킬 이, 당신 같음 또 있을까.

挽回時運罕如公



모암유고

1907년 7월 14일 대한제국이 일제의 강압에 밀려 주권을 잃어가고 있을 때, 이준 열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순국했다. 열사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고 있던 헤이그에서 을사늑약의 부당성과 일제의 침략행위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제와 열강의 반대와 냉대를 받았다.

이로 인해 열사는 급서急逝했는데 그 원인은 뱀에 생긴 종기腫氣를 잘못 치료하여 발생한 것인데 4일 후 국내 신문에는 할복자살割腹刺殺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열사의 사인死因이 무엇이었든 간에 국내 민족운동단체에 충격을 던져주니 경술국치 이후 독립운동의 정신적 자산資産이 되었다.

이러한 이준 열사의 순국 소식을 들은 선생은 천붕지통天崩之痛의 심정으로 ‘이준의 절사 소식을 듣고聞李儁節死’라는 시를 지어 삼가 조의弔意를 표했다. 이어서 민영환閔泳煥, 송병선宋秉璿, 송병순宋秉珣 열사의 순국을 시詩로써 기렸다. 선생은 박은식 선생이 저술한 ‘한국통사韓國痛史’를 수불석권手不釋卷하니 근역疆域의 지사志士요 선비였다.

선생은 1913년 2월 전북 계화도繼華島에 은거隱居한 한말 거유巨儒 간재 전우良齋 田愚 선생을 찾아가 집지執贄하고 문인이 되었다. 간재 선생의 ‘성존심비설性尊心卑說’을 굳게 믿고 지키면서 후학을 양성했다. 서당 벽에 스승 간재 처사의 좌우명인 ‘만갑이 지나도 끝까지 한국의 선비요, 일생을 기울여 공자의 제자가 되리라萬劫終歸韓國士 一生竊附孔門人’고 써 붙여 민족의식과 유교적 신념을 통해 우국지사의 면모를 보임으로써 후손들에게 경종警鐘을 울려 주었다.

선생은 직접 의병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심남일, 안규홍 의병장을 물심양면으로 격려하고 제자 염용수 장군이 안규홍 의병장 휘하의 분대장分隊長으로 순국한 것은 간재 선생의 도학道學과 춘추의 리春秋義理 정신을 계승한 결과라고 본다.

저서로 ‘모암유고慕巖遺稿’가 간행되었는데 전일 건田鎰健의 서문, 권순명權純命의 묘지명, 송재성宋在晟의 묘갈명이 있으며 증손 상우相祐가 판사공종희장, 대중회 부회장으로 현로賢勞하면서 송조목족崇祖睦族의 길을 가고 있다. (2023)

성균관 고문·원임부관장이 들려주는 전통예절 (2)

# 생활 의례(儀禮)에 대한 소고(小考)

국내외 7000여명이 구독하는 자랑스런 청송심씨 종보는 젊은 층이나 청소년 일가들에게 예의범절을 알리고 싶다. 특히 공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점차 사라져가는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 문중이 생활의례를 알려 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요즘 시기적으로 선조를 추모하는 춘향제가 봉행되고 있는터라 향사에 임하는 후손들은 좀 더 엄숙하고 제대로 공경하는 태도로 임하기를 바라면서 글을 시작한다.

○ 제례의 집례를 맡은 사람은 조용하고 차분하게 창홀을 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은 야전군사령관이 군대를 지휘하는 것처럼 명령조로 큰 소리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례자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음성이면 적당하다.

○ 축문을 읽는 축관의 음성도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게 하면 된다. 그 자리에 있는 제관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퇴계집)

○ 우리 대종회의 5처 2단소에서 가끔 논란이 되는 문제 중에 ‘묘제(墓祭)에 향렬이 높은 사람과 종손(宗孫)중 누가 제주(祭主)인가?’ 하는 문제인데, 성균관에서 발행한 『한국가정의례교본』에 의하면 대종(大宗)에서 모시는 불천위(不遷位) 5대가 넘어도 위패를 사당에 모시고 제사를 모시는 경우 사당(祠堂)의 제사는 종손이 제주(祭主)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종손이 모든 묘제에도 우선권을 가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8촌을 벗어나면 종궐(宗毀) 종이 무너졌다라 하여 향렬이나 나이가 우선이라고 했다. (갈암집, 송자대전, 대산집 삼산재집 등)

이는 대부분의 문집에서 공통된 내용인데 우리 청송심씨 문중에서 꼭 이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전통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만, 다만 일반적인 예를 소개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할 것이다.

○ 더러는 “여자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며 기제사 때 진찬과 아헌을 큰며느리나 큰 손부가 하는 것이며, 특히 성씨가 타성이라 할지라도 며느리는 고인의 자부요, 손부이기 이전에, 언젠가는 이 집안의 후손들이 받들어 모시게 될 선대(先代) 할머니가 될 것이기에 며느리도 제사에 참사하는 것이 맞다.

○ 차례(茶禮)는 본래 기제사를 모시는 고조이하의 조상에게 매달 삭망(朔望) 음력 초하루와 보름)날과, 명절날 아침에 다과(茶菓)를 올리는 의식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로써 다사(茶祀)라고도 한다. 그러나 요즘은 차례라 하면 일반적으로 설날과 추석의 절사(節祀)만을 차례라 한다.

설 차례는 메가 없고 떡국을 올리며, 추석차례는 송편을 올리는데 새 쌀로 메를 지어 올려도 무방하다. 제상(祭床)은 부모와 조부모를 합설하여 차리되 한 번의 절차로 지낸다. 단잔(單盞)을 올리고 독축(讀祝) 첨작(添酌) 유식(侑食)을 하지 않는다.

○ 흉례(凶禮)와 길례(吉禮)에 대해서 가끔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흉례는 상례(喪禮)를 총칭하는 말로서 일반가정에서도 졸곡(卒哭)이전까지의 상례를 흉례라고 본다. 그러나 제사는 일 년에 한 번 돌아가신 날을 기해서 정성으로 음식을 차려놓고, 살아계시는 것과 같이 반갑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은(報恩)하는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영령께서도 반가워하실 것이라 믿어진다. 그래서 기제나 묘제 및 차례 등 조상에게 지내는 모든 제례는 흉례가 아닌 길례라고 한다.

○ 일가들이 모이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위 향렬에게 반말이나 하대(下對)하는 경우가 있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위 향렬이면 서로 존칭을 하여야 하며(相敬), 향렬이 높다고 하여 나이 많은 아래향렬의 일가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며 상경해야 한다. 다만 같은 형제향렬이면 나이 어린 아우에게 존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가끔 형제 향렬이면서 나이 어린 사람이 형으로부터 존칭을 받으면 “형님이신데 말씀을 낮추어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적인 예이다. 나이가 적은 조카나 손자향렬도 마찬가지다.

○ 언젠가 종보에 문의했던 내용인데 “할아버지 향렬에게 어떻게 불러야 좋을지?”를 질문한 경우가 있었다. 할아버지와 형제간이면 종조부(從祖父), 4촌이면 재종조부(再從祖父), 할아버지와 6촌이면 삼종조부(三從祖父)라 하는데, 일가들이 모였을 때 조행(祖行)할아버지 향렬이면 통상적으로 “대부(大父)님”이라 부르면 무난하다. 반대로 아래 향렬이면 족제(族弟) 족질(族姪) 족손(族孫)이라 부르든지 호(號)나 직함을 부르면 좋을 것이다.

○ 가(哥)와 씨(氏)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내가 나의 성씨(姓氏)를 남에게 이를 때, “나는 심(沈)씨다.” 혹은 “우리는 심가다.”라고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가(哥)는 겸칭(謙稱)이고 씨(氏)는 경칭(敬稱)이다. 그래서 ‘나(저)는 심가’라 해야 하고 ‘우리는 심씨’라 해야 한다.

‘나’는 나 개인을 자칭(自稱)하는 말이고 ‘우리(저희)’의 범주에는 나의 부친을 비롯하여 시조(始祖)를 포함한, 씨족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로써, 만약 ‘우리 심가’ 또는 ‘저희 심가’라 했을 때는 조상을 비롯한 씨족 전체의 위상을 폄하하는 불손한 언사다, 그래서 대동보에도 ‘청송심씨대동세보’라고 하지 ‘청송심가대동세보’라고 하지 않는 것이다. 혹시 이 글을 읽는 젊은 일가들은 꼭 참고했으면 한다.

○ 여러 사람이 식사할 때에는 모두가 함께 수저를 든다. 나 혼자 먼저 먹고, 다 먹었다고 다른 사람이 식사하고 있는 도중에 먼저 일어서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모두와 함께 조절을 해야 한다.

○ 여러 사람과 대화할 때는 나 혼자 말을 많이 하기도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이 있다. 꼭 말을 해야 할 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발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요점만 간단히 하는 것이 좋다. 그 말이 그 말인데 장황하게 길게 한다든가, 어떤 회의 시에 보면, 혼자서 반

복적으로 발언하는 말 많은 사람도 있다. 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남도 발언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말의 기본 원칙은 세 사람이 모이면 1/3,

네 사람이 있으면 1/4 정도로 하고,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의 뜻에 따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말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것이며, 간혹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성난 음성으로 큰 소리 치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다.

○ 살아계신 어른의 이름자를 말할 때는 함자(銜字)라 하고, 돌아가신 어른의 이름자는 휘자(諱字)라고 한다. 예컨대 살아계신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는 “저의 아버님의 함자는 심자 대자 평자입니다.”라고 말하고, 돌아가신 어른의 이름자를 말할 때는 “우리 청송심씨 시조님의 휘자는 홍(洪)자 부(孚)자 이십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종친회 같이 모두 같은 성씨가 모인자리에서는 굳이 성씨는 말하지 않아도 되며 “저는 창원에서 온 흥보입니다.” 또는 “저는 경남 함안에서 온 26세손 진식입니다.” 라면 된다. 간혹 친목회 같은 장소에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저의 이름은 심자 재자 모자입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소개할 때는 그냥 “심재모입니다.” 하면 된다.

그리고 피휘(避諱)라 하여 돌아가신 어른이나 높은 사람의 이름을 아랫사람이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지을 때도 웃어른의 이름자는 피하여야 하며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끝으로 요즘 심각한 예절 중에 전화예절에 대해서 당부하고자 한다. 전화기는 현대문명이 개발한 아주 편리한 기계이지만 때로는 공해가 되기도 한다. 바쁘지도 않은 전화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밤중에 거는가 하면, 카톡이나 문자메세지 역시 시(時)도 때도 가리지 않고 소음이 되기도 한다. 모두가 잠든 밤중에는 정말 자제해야 하며, 길(吉) 흉(凶)사 시에 보내는 문자 메세지나 초청장도 서로 간에 오고 간, 가까운 친·인척에게만 해야지 나이 많은 노인에게까지 무작위로 보내는 것은 예(禮)에 벗어나는 일이다.

이상 열거한 내용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알고 있으면서도 자칫 실수할 수 있는 일들이기에 우리 청송심씨는 참고했으면 한다.



익은공종회장 겸 대종회 부회장 **심동섭**  
성균관 고문·원임부관장

일가 기업탐방 - 이엘에스솔루션 심재문

## ‘상생경영’으로 일구어낸 기적의 성공신화

### 창사10년만에 매출 750억 달성!



심재문 대표이사

#### 기업경영 철학

심재문 대표는 보통 CEO들과는 달리 매우 겸손하고 소탈하다. 대화가 거듭될수록 그의 소탈함 속에는 CEO의 품격이 느껴지며, 이러한 그의 성품은 회사 경영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심 대표의 경영철학은 ‘상생경영’이다. 모든 직원들 뿐만 아니라 협력사들과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것이 경영자로서 그의 소신이다. 이를 위해 심 대표는 현장을 중시한다. 사업특성 상 현장이 회사 운영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현장 관리자에게 과감하게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맡김으로써 현장이 자율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지원한다.

그 결과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자부심과 애사심을 갖음으로써 생산

성 향상을 가져와 사업관리가 선순환 구조로 작동되고 있다. 심 대표이사는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힘쓴다. 최소 한달에 한번은 전국의 각 지점을 순회 방문한다. 그때마다 현장의 애로 사항과 개선점을 시의 적절하게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한다. 뿐만 아니라 현장의 협력사들과도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 접점에 있는 직원들을 적극 지도하고 이에 필요한 요청사항을 즉각 지원해 준다. 이를 통해 유사시 위기관리에 안정적인 대응체계를 담보하고 있다. 심 대표의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 전국 화물연대파업 과정에서도 이엘에스솔루션은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여 고객사들과의 납품 일정을 지키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결국 상생경영은 성공신화의 실질적인 핵심가치이다.

2013년 창립한 이엘에스솔루션은 올해가 창사 10주년이다.연륜에 비해 매출은 대단하다. 창사 첫해 70억원에 불과하던 매출이 작년에는 무려 750억으로 급성장하였다. 올 매출 목표 850억원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야말로 일취월장 초고속 성장이다.

#### 자동차 부품 물류유통 전문기업- 이엘에스솔루션

이엘에스솔루션은 국내의 자동차부품 물류 유통 전문기업으로 수출 컨테이너운송과 국내 벌크운송에 특화된 운수장비 및 관련 인프라가 전국적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다. 사업부문이 3개 분야로 나뉘져 있는데 주력 분야인 수출용 자동차 부품의 내륙 운송을 담당하는 물류사업 부문, 다양한 자동차 부품을 주문에 맞춰 보관 분류하는 포장사업 부문, 그리고 자동차 배기 부품과 시트를 생산하는 제조업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사업 수행을 위해 회사 조직이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전국 9개 지점과 2개의 대규모 컨테이너 집하장이 운영되고 있다. 직원수는 본사와 전국 지점을 포함하여 450여명이 일하고 있다. 아산지점과 중부지점은 고속도로에 인접한 교통 요충지에 위치해 현대차 그룹사의 수출입 운송을 전담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는 리치스태커, 트랙터 등 대형 장비와 고객사에 특화된 우수 인력을 확보하여 경쟁사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예산지점에서는 현대차 협력사들의 다양한 자동차 가공품을 운송하고, 당진지점은 코일, 후판, 철근 등 국내 유수의 제철사들의 제품을 운송하는 등

고객사를 다변화함으로써 회사의 물류역량을 제고하고 있다.울산지점과 서산지점은 현대/기아차 공장 및 협력사로부터 공급되는 자동차부품을 고객의 주문에 맞춰 저장, 분류, 포장하고 공 용기 회수와 공용기장 관리등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영천/금호지점과 임고지점에서는 글로벌 기업인 프랑스의 포레시아사의 주문을 받아 자동차 시트와 자동차 배기 부품을 생산, 납품하고 있다.

#### 문화재 애호가로서 심대표의 아름다운 삶

심재문 대표는 청송심씨 도총제공파 25세손이다. 오래전부터 우리 전통 문화재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서화, 도자기, 고문서 등 상당한 양의 골동품을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특히 우리 청송심문과 관련된 유물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수집에 열중하고 있다. 심대표는 기회가 되는대로 국내는 물론 해외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선조님들이 남기신 고귀한 유물을 찾고 있다.

자랑스런 명문가의 문화재가 자칫 흔적없이 사장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소홀하게 취급될까봐 소명의식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문화재 애호가이자 청송심씨 후손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청송심문 역사박물관이 건립되면 적극 동참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 향후 심문 후손들이 우리 선조들께서 남기신 훌륭한 유산을 공유함으로써 자랑스런 청송심문의 후예로서 자긍심과 뿌리정신을 심어주는데 기여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다.

(취재 = 심창래 중보편집위원 겸 기자)



이엘에스솔루션 회사전경



왼쪽부터 심결평 위원, 심상억 문화이사, 심재문 ELS솔루션 회장, 심창래 중보편집위원 겸 기자, 심길선 위원



## 50년 외길 매듭공예 심영미 장인(匠人)



전통문화 맥 잇는 '매듭공예' 기능 전승자 심영미 장인

〈심영미 매듭장인이 걸어온길〉

1994~2013 경기도 박물관 초상화 유소, 국립 고궁박물관 어진 유소 재현 제작  
 2007~2008 대한민국 국세 다회 제작, 전주 경기전 태조어진 유소 재현 제작  
 2009 노동부 지정 '매듭' 기능 전수자 '09-03호'  
 2009~2019 김홍조 광다회, 초상화 장식 및 초대 개인전 '아름다운 한국 전통매듭 공예'

매듭은 실의 형태를 인위적으로 엮어 한국 고유의 문양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공예작품이다. "매듭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수나, 칠보, 금은공예와 어우러짐으로써 자신의 진가를 발휘한다고 할까요. 연극 측면에서 보면 주연이 아닌 조연이지요." 라고 말씀하신다. 그 예로 (사)한국자수문화협회의 4개 분과를 보더라도 현대자수, 전통자수, 복식, 매듭으로 분류된다.

옛날에도 '국세 의장품, 국새 저고리보와 내함 겹보자기를 묶는 다회끈, 자물쇠를 보관하는 가족 주머니의 다회끈, 상 위를 덮는 천의 술, 허리띠나 노리개술, 염낭끈...

궁중에서는 5월 단오절에 백옥과 비치로 된 외줄 노리개를 달고, 8월 추석에는 삼작노리개를 달았다. 민간에서는 주로 은삼작을 달았는데 혼례 때 사용하고 나면 평생 간직할 요량으로 장롱 깊숙이 간직하곤 했다.

바로 그 노리개의 품위와 멋스러움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매듭이니 매듭이란 그가 말하는 것처럼 주연 아닌 조연이지만 사실은 주연 못지않은 조연인 셈이다. 매듭은 여인들의 전유물은 아니다. 선비

들이 한여름에 쓰는 부채 끝에 다는 선추에도 매듭은 다소 곳이 자리하고 있다. 어디 그뿐이라. 태어나 첫 생일을 맞이하는 첫 뉘복도 여지없이 매듭은 장식되어 있다.

한편 죽은 사람의 길을 인도하는 인로왕보살의 이름을 쓴 깃발인 인로왕번에도 매듭은 지어져 있다. 어찌보면 매듭은 인생과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태어나 죽을 때까지 예로써 함께 하니 말이다. 한복을 입는 사람도 마지막 장식은 노리개이다.

이제는 목걸이, 브로치, 팔찌, 장식품 등으로 영역을 확대 할 필요성이 있다.

올해로 60년 세월 명주실 하나하나를 뽑기도 힘든데 여기에 물을 드리고 한 올 한 올 꼬아 모양새를 만들며 손뚝

은 몇 번이나 빠지는 아픔을 겪었던가.

지금도 굳이 손수 실을 뽑으시려는 의지는 전통을 예술로 승화시키시려는 끈기와 인내에서 출발하는 전통의 DNA가 전수된 것은 아닐까?..

3대째 가업이 이어지는 집안 내력을 넘어 여러 가지 도구들, 각종 매듭들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단절되었던 우리나라 매듭의 전통기법을 되살릴 수 있는 환경을 보존시켜 오신 시대어르신께 감사의 마음을 느낀다.

매듭의 세월은 궁궐의 왕고모님, 시아버님 그리고 남편과 심영미 장인으로 이어지니 100년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머물지 않고 4대째 가업을 이어 나가는 든든한 버팀목인 며느리가 있어 지금이 더없이 행

복하다.

며느리도 꾸준히 배우며 대학 강의도 나가고 공방에서 매듭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유물 재현을 넘어 사명감, 목적의식도 생겼으며 시어머니이신 심영미 장인의 매듭을 보며 균형과 질서의 미학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매듭의 정답을 찾게 되었다고 한다.

"유소 전시회"는 심영미 장인이 최초이다. 유소란 초상화에 다는 매듭으로 완성된 매듭에 매듭 맺기를 반복해 술을 길게 늘어뜨려 장식하는 것으로 굉장히 힘든 작업이다.

"유물재건과 복원작업"은 당시의 매듭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으로 그동안 재현된 작품인 태조 어진, 정몽주, 체재공, 영조, 영조의 연잉군이었을 때 쓰던 매듭 등 20여점을 재현 한 자존감은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기쁨이다.

앞으로 매듭을 보는 것이 아닌 실생활과 계속 연결되려면 매듭 연구를 통해 더 많은 후진양성 교육이 필요하고 기초적인 생활과 이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 세대는 가졌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걱정이 많다.

현재로 라면 전승자는 끊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공예 문화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신분도 우대해주고 현재 실습할 공간도 넓혀야만 한다.

매듭 관련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 체계적으로 공부시켜주신 유희경 박사의 "전통복식사" 는 매듭에 눈을 뜨게 해주고, 용인대학교 박지선 교수의 권유로 경기도 박물관 소장의 공신상 유소를 재현할 수 있었다. 이후 본격적인 유소를 작업하기 시작해 경기도 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전주태조어진박물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등 박물관에 있는 여러 유물들을 복원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린다.

(취재=심재금 종보취재기자)



왼쪽부터 심상익 문화이사, 심화숙 전통한지공예가협회장, 심영미 매듭장인, 심재금 종보취재기자

# 沈門의 희망, 국가의 동량...제5기 청심장학생 14명 선발

## 4월15일 장학증서 수여식...장학생들 '沈門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겠다'

4월 15일 재단법인 청심장학회(이사장 심대평 대총회장, 운영위원장 심오택)는 이들은 심문의 희망이자 국가의 동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5기 장학생으로 선발한 14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왼쪽부터 심규정 재무이사, 심규현 변호사(청심장학회 1기 장학생), 심재욱, 강예은 대전 노은고1년, 심태린 예원학교 2학년, 심재현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 과학기술정책학과 3학년, 심오택 운영위원장, 심한준 서울대 공과대학 항공우주공학과학원 박사과정, 심대평 이사장, 심민경 삼성여고 3학년 언니, 심영서 이화여대 건축도시시스템공학과 3학년, 심여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4학년, 조민수 선덕고 3학년, 심대실 이사

### 유능한 공직자가 되고파

우선 부족한 제게 장학금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학 입학하고 제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받도록 노력해서 매 학기 성적장학금을 받자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고생하신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학비를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에 입학한 직후부터 학교에서 성적장학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공부의 목적이 장학금은 아니었기에 계속

해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했지만, 특별히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 보니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에 관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청심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수여하게 되어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무척 기쁘고도 감사했습니다. 또 훌륭한 분들과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장학회를 이끌어주시는 이사장님, 심사위원분들, 후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선배 장학생 분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축하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부에 정진하여 대한민국에 귀한 쓰임을 받는, 마음이 따뜻한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과 활동을 통해 청심장학회를 빛낼 수 있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연소 합격자 서울대 경제학부 심여진

### 우주강국 대한민국을 꿈꾸며



청심장학회 제 5기 장학생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박사과정 심한준

“3, 2, 1, 엔진 점화, 이륙,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2022년 6월, 대한민국 고흥에서 굉음을 뿜으며 날아가는 누리호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주발사는 선진국의 전유물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아침에 집에서 일어나서 KTX를 타고, 차를 타고, 우리 땅에서 그 발사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자력으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세계 일곱 번째 대열에 나란히 섰습니다.

다가올 우리의 미래, 그리고 국가 안보의 핵심은 최첨단 기술로 대변되는 국가 방위산업 또는 우주

개발산업 기술을 확보하여 정보를 독점하고, 안보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4차 산업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으로 불리는 위성항법 시스템은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2년 발사된 누리호를 기점으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한국형 전투기(KFX), 그리고 차세대 한국형 발사체(KSLV) 등의 사업과 우주 항공청 설립 등을 추진하며, 세계의 우주 기술 경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국가사업이 활발히 시작되는 시점에, 저는 대한민국 항공 우주 공학도의 일원으로 청심장학회 제 5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에 매우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는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학하며, 우주 산업은 매우 다양한 산업 군과 많은 협력이 필수적인 분야임을 직간접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박사과정 동안, 국내 초소형 위성 개발 사업의 기술 증진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3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매우 조그마한 위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단계부터, 부품 구매, 제작, 시험, 그리고 발사까지의 모든 과정 중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동료와 잘하

는 부분을 서로 믿고 신뢰하는 방법을 배웠고, 국내 우주 산업 종사자분들로부터 책에 없는 실질적 기술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던 학문적 지식과 책으로 배울 수 없는 수많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현재 박사과정의 최종 관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우주개발사업에 종사하는 엔지니어가 되어 국의 증진에 보탬이 되고자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통해 얻은 전문 지식들과 연구개발 역량을 통해, 주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의 포부를 듣고 청송 심씨의 가문의 일원으로 장학금을 주신 기부자분들과 청심장학회에 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주신 기회를 잊지 않고, 장성하여 저도 후배들을 후원하고 더 큰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한국의 우주기술을 세계 최고로 만들기 위해 평생 기여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항공우주공학 분야 엔지니어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정직과 실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우리나라가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데 일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정공(13세조 諱 光濂)파 종중의 초석이 된 숨은 이야기

# 아산 진사공종회를 찾아서

## I. 부정공(휘 광염)의 계보 및 아산으로의 입향

부정공(副正公) 광염(光濂, 1595년 선조28년~)은 안효공(安孝公, 諱 濶)의 8대손이며 수찬공(修撰公 諱 達源)의 현손(玄孫)으로 진사공(諱 友俊)의 장손(長孫)이다. 아버지는 호성원종훈(扈聖原從勳)에 책록되고 사헌부 감찰에 증직된 심해(沈諧)이고 어머니는 동래정씨로 都事 정운길(鄭雲吉)의 따님이다. 정유재란(1597)때 3세아로 모친의 품에 안겨 피난중에 왜적선에 포위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정절을 지키기 위해 모친동래정씨는 바닷물에 투신하시고 충비(忠婢) 복이(福伊)할머니에 의해 양육되어 청장년기를 과천 등지에서 보내시다가 병자호란(1636)을 전후한 시기에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로 입향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공께서는 장남 근(根), 차남 두(料), 3남 계(桂)와 4녀를 두셨다. 그 중 사헌부 지평(持平)으로 贈職된 차남(諱 料)의 직계 후손이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용와산 자락에 자리를 잡고 약 30여 가구 200여명이 세거지를 이루어 살아왔다. 그러나 산업화가 촉진되면서 젊은층이 진학과 사회진출이 활발해지자 인근 천안, 대전, 서울 등지로 이주하였으며, 요즘은 약10여호 20여명의 후손만이 집성촌에 살면서 산소를 관리하면서 시제를 봉행해오고 있다.

## II. 진사공(휘 우준) 후손들을 지켜준 할머니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95번지(퇴골 마을 입구)에는 동래정씨 정려(旌閭, 정문이라 불림), 오른쪽에는 충비복이여사영세불망비(忠婢福伊女史永世不忘碑)와 단(檀), 심명진처강릉김씨의열비(沈明鎭妻江陵金氏毅烈碑)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다.

### 1. 열녀 동래정씨 정려(烈女東萊鄭氏旌閭)에서 정절을 배우다

[烈女贈承訓郎司憲府監察 沈諧 妻 鄭氏之閭]

『때는 선조 30년 정유 봄에 왜적이 다시 쳐들어 오매 저희 11대 할머니 정씨께서 전라도 영광지방으로 목선을 타고 피난을 가시게 되었는데 칠산 앞 바다에서 돌연히 왜적의 배떼를 만나 사면을 포위당하여 금방 화를 당할듯하매 정씨할머니께서 같은 배에 탔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옥을 당하고 사는 것보다는 절개를 지켜서 죽느니만 같지 못하다 하고 데리고 가던 복이할머니를 불러 품안에서 젓먹이 세살된 아기를 내어주며 우리집 혈맥은 오직 이야기뿐이니 그대는 틀림없이 정성껏 길러줄 줄 믿는 동시에 천지신명이 보호하여 주시기만 축원하노라 하며 태연히 배에서 몸을 던져 바닷물에 떨어지는지라 같은 배에 탔던 12부인이 감동하여 따라서 물에 빠져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켰으니 아! 장하다. 천고에 드문일이요 자손만대에 영원히 잊지 못할 교훈으로서 그날이 바로 정유 9월 27일이였다. 그 후 복이할머니가 천우신조하여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지성껏 양육한 아기가 바로 저의 10대조 휘는 광염으로서 저희 집안에 가장 유공한 어른입니다. 세월은 흐르고 역사는 바뀌어서 정유왜란도 여섯 번 환갑을 맞이하여 360년이 되었습니다. 뜻있는 자손의 사무치는 회포 더욱 간절하오며, 원래 자손이 불초하고 청빈하여 장하고 가륜한 절의에 대하여 조금도 보답함이 없음을 부끄럽게 생각

하는 바입니다. 단기 4290년 정유 춘삼월 11대손 연소 재배 근서』

### 2. 충비 복이 여사에 감사의 마음을

산동리 청송심씨종중에서는 1957년 『충비복이여사영세불망비』를 건립하고 1983년 『충비복이단』을 세워서 매년 감사의 제를 올리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복이 할머니의 재천의 총령이시여! 할머니야말로 저희들의 영생에 잊지 못할 대 은인입니다. 어찌 감히 종이라고 부르리까. 세상은 이미 만민이 평등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정유 왜란도 지난지 벌써 360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11대조 비 정씨 할머니께서 피난가시다가 영광 칠산 바다에서 왜적에게 포위당하게 되어 목숨을 던져 절개를 지키고자 할때에 젓먹이 세살된 아기를 같이 가던 복이 할머니 품안에 안겨주며 오직 하나밖에 없는 심씨대 혈맥이니 부디 정성껏 길러 주기 바란다고 간곡히 부탁하고 바다에 몸을 던져 태연히 절사하셨습니다. 그 후 할머니께서는 구사일생으로 아기를 안고 적진을 빠져나와 지성껏 양육하셨으니 그때의 3세 유아야말로 저희 10대조로서 유리방황하는 처참한 전란중에 있어 할머니의 따뜻한 품안이 아니었던들 어찌 생명을 보존하였으며 저희들의 오늘이 어데 있었겠습니까 원래 사람은 낳은 공보다 기르고 키운공이 더 크는데 저희들이 무능무력하여 할머니의 은공을 일호도 보답지 못하여 죄송할 뿐이오며 앞으로 영원히 세세상전하여 할머니의 은공을 명심불망하고자 하나이다. 단기 4290년 정유 춘삼월 산동리청송심씨종회 근립 심연소 근서』

### 3. 강릉김씨 의열비(23세 명진처) : 세상에 이룬 일이...

심공명진처강릉김씨의열비(沈公命鎭妻江陵金氏懿烈碑) / 비문 뒷면(심재석박사 해석)

우리 집안의 동생 심명진의 아내 강릉김씨의 특이한 행실은 고금에는 거의 없고 어쩌다가 있는 일이다. 심명진은 젊은 나이에 가세가 기울어져 부인 강릉김씨와 함께 이리저리 떠돌다가 외롭게 만주국 봉천성에 머물렀다. 부지런히 힘겹게 생활했는데 불행히 병에 걸려 반신불수가 되었다. 부인이 여러 방면으로 치료를 했지만 끝내 효험이 없었다. 하루는 의사가

“이 병을 치료하는 비방은 오로지 사람고기를 먹는 것 외에는 달리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부인이 이 말을 믿고 스스로 허벅지 살을 잘라 남편에게 드리면서 “쇠고기입니다”

하였다. 이처럼 하기를 여러 차례 하였더니 과연 병이 나왔다. 그 뒤 심명진이 우연히 부인의 왼쪽 허벅지가 모두 흉터 흔적이고 온전한 살갗이 없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 부인은, “일이 이미 드러났으니 어찌 감히 속이겠습니까?” 하고

사실대로 말하였다. 심명진이 깜짝 놀라면서 “전날 먹은 소고기가 이것이었던가? 어렵도다! 어렵도다! 지극한 정성이 아니면 이처럼 할 수 있을까?” 하였다. 이에 이 말을 들은 원근의 이웃들은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을 감탄하며 칭찬하였다. 혹 남편이 병 들면 손가락을 자른 사람이 있고 남편이 죽으면 따라서 죽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는 오직 한번 결단하여 그친 것이다. 지금 강릉김씨가 허벅지 살을 베기를 두세 번 여러 차례 칼로 베면서도 고통을 숨기고 입으로 드러내지 않았으니 그 매섭고 굳건한 행실은 한 번 결단하고 그친 자와 비교하면 경중이 어떠하겠는가? 또한 그 칼을 댄 곳엔 약도 바르지 않았는데 저절로 나았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게 하였다.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봉천성의 동포들이 한결같이 칭송하고 각자의 연금을 내고 의식을 갖추어 표창을 하고 글을 만들어 사실을 기록하였다. 드디어 그 글을 참고하여 그 요점을 모아서 돌에 새겨 이 특이한 행적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하여 후인들이 보고 느끼게 한다.

1943년(계미년) 3월 일  
족중 전군수 심택진(宅鎭) 글을 짓고  
족제 심용진(龍鎭) 글씨를 씀

## III. 종손(諱 熙泰)의 종재 희사는 종중 발전의 모태

자랑스런 희태(熙泰, 1919~2011) 일가님의 선행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에서 건식(建植)의 맏아들로 태어나 1937년 경성전기학교를 졸업, 기술사에 합격 중앙청(6년), 한국재건단(6년), 한국전력(3년) 근무하셨으며,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선영(先塋)과 가보(家寶)를 보존 관리해 오다가 부정공광림과 종중의 종재로 희사하셨다.

진사공(휘 우준)의 14대손이며 부정공(휘 광염)의 12대손인 희태(熙泰) 종손께서는 선대로부터 물려 받은 개인명의로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임야 706평과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소재 20,455평(임야, 전답, 대지)의 종토(宗土)를 1995년 부정공광림과종중에 희사(喜捨)하면서 진사공과 종중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니 이는 자손만대에 이어질 것이며 고귀(高貴)하고 송고(崇古)한 송조돈종(崇祖敦宗)의 얼을 기리고자 진사공과 종중에서는 2019년 4월 2019년 공적비를 건립하여 추모하고 있다.(취재=심재월 종보편집위원)



심희태 일가님 공덕비 앞에서...왼쪽부터 심희국 총무, 심상억 문화이사, 심행근 회장, 심한식 이사.(사진=심재월 종보취재기자)

2023년 춘향제

# 송조돈목의 모범 문중을 선 보여... 참배일가분들 2배 증가

청송 중대산소 춘향제 봉행(4월6일)



왼쪽부터 심원섭 유사, 심준섭 前종무사, 심상후 청송군의원, 심상철 청송환경회관 관장, 심상복 청송 유사

3세조 청화부원공(휘 龍) 춘향제 봉행(5월2일)



안성3세조 춘향제 봉행에는 경향 각지에서 73인이 참석했다... 초헌관 윤식 안성화수회장, 아헌관 연촌 안효공종회 부회장, 종헌관 석산 정이공종회장, 축관 양섭 前 사인공파종회장, 집례 홍섭 효창공파종회 고문, 집사 창보 인수부윤공종회 총무이사, 재근 대종회 이사, <배위 金氏 할머니> 초헌관 재구 부회장 겸 인수부윤공종회장, 아헌관 상열 원주·횡성종회장, 종헌관 호섭 前 안성화수회장, 축관 양섭 前 사인공파종회장, 집례 상홍 신천공종회 부회장, 집사 창보 인수부윤공종회 총무이사, 재근 대종회 이사

4세조 청성백(휘 德符) 초배위 청주송씨 춘향제 봉행(5월6일)



청주4세조 청성백(휘 德符) 초배위 청주송씨 춘향제는 우천관계로 청주 재실에서 열렸는데도 경향각지에서 73인이나 참석했다... 초헌관 상우 부회장 겸 판사공파종회장, 아헌관 음식 안효공파종회 운영위원, 종헌관 호식 청주종회 이사, 축관 홍섭 효창공파종회 고문, 집례 상호 청주종회장, 집사 정섭 동서울종회 이사, 혁규 효창공파종회 이사

장성 양계사 춘향제 봉행(4월25일)



1834년(순조 34년) 심덕부(沈德符), 심계년(沈繼年), 심연(沈淵)을 배향하기 위해 건립한 사당...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마령리 349번지 내마마을... 초헌관 심옥섭, 아헌관 심철용, 종헌관 심규양, 축관 심호섭, 집례 심정섭

시조 문림랑공(휘 洪孚) 춘향제 봉행(4월6일)



청송시조 춘향제 봉행에는 초헌관 심대평 대종회 회장, 아헌관 심길택 이사(청송)-심규화 울산내금위공종회장, 종헌관 심재일 창원사복시정공종회장-심상열 도총제공파 원주·횡성종회장, 집례 심상철 이사(청송), 대축 심진식 현령공파경남종회 총무 등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심상현 대종회 부회장겸 도총제공파종회장, 심능광 대종회 부회장(청송), 심동섭 대종회 부회장 겸 악은공파종회장, 심광석 광주부윤공파전산종회장 등 경향각지에서 40여분이 참석했다.

2세조 합문지후공(휘 洪孚) 춘향제 봉행(4월24일)



경상남도 합천군 두모2길 7(삼가면, 제실)... 앞줄 왼쪽부터 열섭(합안), 병찬(합천), 진섭(산청), 현섭(합천), 재인(진주), 흥보(창원), 재상(합천), 증영(의령), 동섭(진주), 경섭(합천), 건섭(합천), 정섭(명석), 재일(창원), 재주(창원), 용태(산청), 진식(합안), 둘째줄 왼쪽부터 재욱(의령), 대용(대양), 재록(미천), 재걸(합안), 재홍(합천), 한섭(수곡), 명규(합천), 명섭(합안), 철보(이반성), 근상(합천), 재화(산청), 상근(합천), 현수(합천), 원보(목곡), 춘덕(합천), 재화(진주)

4세조 악은공(휘 元符) 경의재 춘향제 봉행(5월14일)



청송 4세조 악은공(휘 元符) 경의재 춘향제 봉행에는 경향 각지에서 130여명이 참석했다. 초헌관 재대 악은공종손, 아헌관 상우 부회장 겸 판사공종회장, 봉섭 5세조 돈제공종손, 종헌관 상배 대구종회 총무, 재일 창원사복시정공종회장, 축관 홍섭 악은공파종회 부회장, 집례 광섭 前 악은공파종회 총무, <5세조 영동정공(휘 天濤)> 초헌관 상익 이사, 아헌관 극택 석촌공파종회 고문, 재덕 부산종회장, 종헌관 정섭 경남 명석문중, 축관 진식 현령공파경남종회 총무, <6세조 석촌공(휘 孝尙)> 초헌관 상정 前 재구청송향우회장, 아헌관 상익 문화이사, 종헌관 부섭 파천면장, 축관 수철 이사(안동)

세종대왕·소헌왕후 기신제 봉행(4월8일)



왼쪽부터 심헌진 이사, 심원섭 안효공종회 총무이사, 심음식 이사, 심정섭 이사, 아헌관 심우섭 안효공종회 부회장, 심연태 총무이사, 심익섭 오산사복시정공종회장, 심봉섭 안효공종회 재무이사

2세조 합문지후공(휘 淵) 춘향제 봉행(4월30일)



함열2세조 춘향제 봉행에는 경향 각지에서 86인이 참석했다... 초헌관 재구 부회장 (광주파레스관광호텔 회장), 아헌관 재구 부회장 겸 인수부윤공종회장, 상현 부회장 겸 도총제공종회장, 종헌관 연촌 안효공종회 부회장, 상우 부회장 겸 판사공종회장, 축관 상홍 신천공종회 부회장, 집례 수영 전북종회장, 집사 정섭 동서울종회 이사, 창보 인수부윤공종회 총무이사, 규섭 오산사복시정공종회 총무이사, 해철 전북종회 이사, 찬인 관섭 청수회 수석부회장

<연못조성 고유제 봉행> 현관 의두 대종회 고문, 축관 행근 아산 진사공종회장

4세조 청성백(휘 德符) 춘향제 봉행(5월4일)



연천 4세조 청성백(휘 德符) 춘향제 봉행에는 경향 각지에서 116인이 참석했다... 초헌관 대평 명예회장, 아헌관 연촌 안효공종회 부회장, 종헌관 덕보 연천문화원 자문위원장, 축관 양섭 前 사인공파종회장, 집례 연태 이사, 집사 우철 동서울종회 이사, 기섭 동서울종회 총무, <연못조성 고유제 봉행> 현관 상현 부회장 겸 도총제공종회장, 상홍 신천공종회 부회장, <배위 인천문씨 할머니> 초헌관 재구 부회장 겸 인수부윤공종회장, 아헌관 재득 13상신순조사업 위원장, 종헌관 진섭 (재)청심장학회 이사, 축관 양섭 前 사인공파종회장, 집례 연태 이사, 집사 정섭 동서울종회 이사, 창보 인수부윤공종회 총무이사

5세조 도총제공(휘 仁鳳) 및 배위 동양군부인 춘향제 봉행(5월6일)



우천관계로 청주 재실에서 열린 춘향제에는 경향 각지에서 73인이 참석했다. 초헌관 상현 부회장 겸 도총제공파종회장, 아헌관 의보 도총제공파 청주종회장, 종헌관 갑섭 지성주사공파종회 이사(광주), 축관 홍섭 효창공파종회 고문, 집례 상호 청주종회장, 집사 정섭 동서울종회 이사, 혁규 여주가남종회 총무

숙용심씨 기신제(4월16일)



왼쪽부터 심봉섭 안효공종회 재무이사, 심재철 이사, 심기섭 동서울종회 총무, 심종복 사인공종회장, 심우철 이사, 아헌관 심우섭 안효공종회 부회장, 심홍섭 효창공종회 고문, 심재금 前 한강신희이사장, 심정섭 이사, 심해선 이사, 심규정 재무이사

# 소통, 공감하고 일가끼리 화합하는 청송심문을 위해서...

## 대중회 활동 사항

화합 안성총회 결성회의(3월29일)



왼쪽부터 심철유 안성유사, 심호섭 전 청화부원군중회장, 심규정 재무이사, 심상익 문화이사, 심일섭 이사

온양공파창원사복시정공중회 감사차 창건 14주년기념식(4월2일)



왼쪽부터 재모 부회장, 상익 문화이사, 재구 이사, 재영(부산), 대평 대총회 회장, 재일 회장, 동섭 대중회 부회장 겸 익은공중회장, 한섭 현령공경남중회장, 용태(산청), 철보(이반성), 재문(의령), 재봉(창원) 둘째 줄 왼쪽부터 진식 현령공경남중회 총무이사, 재주 이사, 재국 이사, 재훈 이사, 명규(합천), 재화 전 산청군의회, 재갑 이사, 학섭(밀양), 증영 현령공경남중회장, 경섭 두산정보중회장, 재열 전 회장, 인섭(진주), 재록(진주), 셋째줄 왼쪽부터 재립(부산), 재양 이사, 성보 이사, 영보(부산), 흥보 총무, 보원 이사, 현수(합천), 재포 이사, 원보(김해), 재국 이사

25년만에 본향 파천면장에 취임한 심부섭 면장 축하방문(4월5일)



왼쪽부터 심상익 대외협력실장, 심대평 대중회 회장, 심부섭 파천면장, 뒷줄 왼쪽부터 심재월 이사, 심남규 전 청송군 사무관, 심장섭 전 청송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심순희 청송군 문화산업팀장

대중회 심대평 회장, 청송군수 예방(4월6일)



왼쪽부터 심재월 이사, 정미진 청송군의원, 심대평 회장, 윤경희 군수, 심상익 대외협력실장, 심상휴 청송군의원

시조 문림랑공(휘 洪孚) 수호사찰 보광사 주지스님 예방(4월6일)



왼쪽부터 (심)무구 보광사 주지스님, 심대평 대중회 회장, 심상익 문화이사

시조님 묘소 진입로 석축공사 공로자 격려만찬(4월5일)



보광산 시조 문림랑공(휘 洪孚) 묘소 진입로 석축공사 설계(청송군사업비 1억2천만원)완료...왼쪽부터 심남규 전 청송군 사무관, 심상휴 청송군의원, 정미진 청송군의원, 심상철 청송 찬경회관 관장, 심장섭 전 청송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심상복 청송유사, 심영희 이사, 심대평 대중회 회장, 심상익 대외협력실장

대중회 위원 초청 간담회(4월14일)



왼쪽부터 심익섭 달력디자인위원장, 심상조 재산관리위원장, 심대평 회장, 심우섭 주목희 총무, 심재갑 13상신승조사사업위원, 뒷줄 왼쪽부터 심재석 종보편집위원, 심상익 문화이사, 심재열 13상신승조사사업위원, 심은석 청심장학회 운영위원, 심익섭 13상신승조사사업위원, 심재덕 13상신승조사사업위원, 심재덕 재산관리위원, 심재섭 청심회장, 심규정 재무이사

대중회 위원회 역할 당부 간담회(4월20일)



왼쪽부터 심익보 운영위원, 심상돈 이사, 심대평 대중회장, 심오택 청심장학회 운영위원장, 심영철 교수, 심상돈 운영위원, 뒷줄왼쪽부터 심종래 종보편집위원, 심상익 문화이사, 심달훈 감사, 심호 이사, 심양섭 청심회 사무총장, 심규정 재무이사

종보제160호 현재공중회탐방 기사 액자 전달(5월11일)



왼쪽부터 심창선 곡산공파중회 총무, 심영철 수원대 교수, 심상익 문화이사, 심종식 현재공파중회장, 심성식 총무, 심문구 고문

심현섭 前 쿠웨이트 한인회장 대중회 방문기념(5월15일)



왼쪽부터 심규정 재무이사, 심현섭 회장, 심상익 총무이사, 심재월 문화이사

종보 제160호 심인택 이사장 기사 액자 전달(5월19일)



왼쪽부터 심상익의 처 이창옥, 심남이 이사, 심상익 총무이사, 심인택 이사장, 심상보 부산총회 총무

대중회 공개채용 인사위원회 면접모습(5월 10일)



상임이사 공개채용은 서류심사·면접 등 다면평가 방법으로서, '인성(청렴성, 도덕성), 직무수행역량, 심문애(沈門愛),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준용'이 주요 심사기준이었다.

지파종회 소식

경향각지에서 추모와 승조돈목의 열기가 뜨거웠다!

합천 두산정보준회 이사회(3월 25일)



왼쪽부터 심증영 현령공경남중회장, 심철보 이반성정수중회장, 심동섭 악은공중회장 겸 대중회 부회장, 심경섭 두산정보준회장, 심재일 창원사복시정공중회장, 심현수 두산정보준회 이사, 심명규 두산정보준회 총무, 심재규 의령중회장, 심용태 진주냉정모암공중회장, 심홍보 창원사복시정공중회 총무, 심재걸 함안수곡문중회장, 심성호 두산정보준회 이사, 심한섭 현령공경남중회 감사, 심용주 두산정보준회 이사, 심근섭 두산정보준회 이사, 심재모 창원사복시정공중회 부회장, 심진섭 두산정보준회 이사, 심진식 현령공경남중회 총무이사

청송심씨안동중회 정기총회(4월22일)



청송심씨안동중회(회장 심재덕)는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일가간의 승조돈목을 더욱 공고히 했다.

2세조 합문지후공 묘소 여수중회 합동참배(4월29일)



청송심씨여수중회(회장 심재수)는 입향조 안효공(휘 濶)의 10세손 태현(太鉉) 선조이다. 1570년대에 경남 진주에서 전남 여수시 묘동 창촌마을에 입향했다.

거창중회 청송 보광산 시조 문림랑공 묘소 참배(5월11일)



청송심씨 거창중회(회장 심재수 전 거창군의회) 일가분 25명은 경북 청송군 청송읍 덕동산 33. 보광산 소재 시조 문림랑공(휘 洪孚) 묘소를 합동참배하였다.

청송심씨부산중회 제43차 정기총회(5월 19일)



앞줄 왼쪽부터 심인보 고문, 심차섭 고문, 심재덕 회장, 심상균 명예회장, 심상익 대중회 총무이사, 심재부 지도위원 등 부산중회 이사분들

좌승지공파임피중회 정기총회(4월1일)



군산시 임피면 군익로 683-46 소재 경모재에서 개최된 임피중회(회장 수영) 정기총회에는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임피중회 현안보고 및 정관개정안 등이 의결되었다.

성남중회 청송 보광산 시조 문림랑공 묘소 참배(4월23일)



청송심씨 성남중회(회장 심갑식) 일가분 20여명은 경북 청송군 청송읍 덕동산 33. 보광산 소재 시조 문림랑공(휘 洪孚) 묘소를 합동참배 하였다.

6세조 양혜공(良惠公, 휘 石篤) 춘향제 봉행(5월9일)



양혜공 춘향제 봉행은 초헌관 재구 인수부윤공파중회장, 아헌관 명섭 곡성공중회장, 종헌관 규화 울산내금위공중회장, 대축은 우경 전곡성공중회장, 집례는 창보 인수부윤공파중회 총무이사, 집사는 우철이사와 정섭 동서울중회 이사가 수고했다.

우리중회 안효공(휘 濶) 묘소 합동참배(5월10일)



왼쪽부터 성섭, 한섭, 안효공파중회 부회장, 상정 국회의원, 연촌 안효공파중회 부회장, 재섭 우리중회장, 익섭 우리중회 부회장, 상목 안효공중회 이사, 경진 우리중회 사무총장, 국향 우리중회 제주지부장, 뒷줄 왼쪽부터 봉섭 안효공파중회 재무이사, 재만 이사, 재섭 이사, 재금 우리중회 여성부회장, 재성 이사, 정환 이사, 재석 정보편집위원, 기선 이사, 재호 위원, 재각 위원

심상조 회장, 5세조 인수부윤공파중회 예방(5월22일)



왼쪽부터 심규정 재무이사, 심창보 인수부윤공파중회 총무이사, 심오택 청심장학회 운영위원장, 심재구 인수부윤공파중회 회장, 심상조 회장, 심상익 총무이사, 심재월 문화이사

광주금당산중회 시제(4월 2일)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산25-1 선산에서 거행된 이날 시제에는 청소년 17명 등 210여명이 참석하였다. 1600년대부터 광주에서 세거해 온 광주금당산중회(회장 심운섭)에서는 지난 4월 2일 11세조 훈도공 우현할아버지 이하 15세조까지 10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시제를 모셨다.

전북위원회 주관 청수회, 고창군 방문(4월21일)



청수회 전북위원회(위원장 심가영) 주관으로 청송심씨 청장년 일가분들이 '고창군(군수 심덕섭) 방문의해를 맞아 고창 명소 탐방하고, 인근 2세조 합문지후공(휘 濶) 합열 묘소를 합동 참배했다.

7세조 망세정공(忘世亭公, 휘 璿) 춘향제 봉행(5월12일)



망세정공 춘향제 봉행은 초헌관 재구 인수부윤공파중회장, 아헌관 우섭, 안효공중회 부회장, 종헌관 송 울산 내금위중회 감사, 대축은 상홍 신천공중회 부회장, 집례는 창보 인수부윤공파중회 총무이사, 집사는 우철이사와 정섭 동서울중회 이사가 수고했다.

군포 칠방공중회 일가분들 연천 청성백 묘소참배(4월8일)



이 날 참배는 칠방공중회 성용 회장, 규석 총무, 판사공회 장보 회장, 재용 총무, 동서울중회 중섭 회장, 기섭 총무, 백향중회전회 익섭 회장, 차섭 감사 등 백여명이 참배. 칠방공중회는 매년 한번씩 오쳐 묘소를 순회 성묘한다.

심상조 회장, 5세조 안효공파중회 예방(5월 22일)



앞줄 왼쪽부터 심재월 문화이사, 심우섭 안효공파중회 부회장, 심응식 운영 위원, 심오택 청심장학회 운영위원장, 심상조 회장, 심연촌 부회장, 심영섭 부회장, 심상익 총무이사, 둘째줄 왼쪽부터 심상목 이사, 심규정 재무이사, 심원섭 안효공파중회 총무이사, 심봉섭 안효공파중회 재무이사

# 영전, 수상, 취임 축하합니다.

## 청송신문 사람들 - 이런일 저런일

심재희 한스경제 스포츠산업부장, 문체부장관 표창(1월2일)



심재민 부장

심재덕 대덕산업 대표, 안동의료원에 기부금 2000만원 기탁(2월20일)



심재덕 안동총회장

한국남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 취임(3월3일)



심재원 선임 상임이사

심규철 공주대 생물교육과 교수, 한국과학교육학회장 취임(3월1일)



심규철 교수

경기도 남양주에 심현섭 개그센터 유머치유·카페 오픈(4월1일)



개그맨 심현섭

포항세명기독교병원, 통합면역센터 심재철 센터장 영입(4월11일)



'통학의학 분야 대가' 심재철 센터장

심재학, KIA야구단 단장 취임 (5월9일)



심재학 신임단장

심승일 회장, 인천해양경찰서 정책 자문위원장 위촉(5월16일)



심승일 삼성가스공업 회장

서울선정형외과 심정인 원장, RMSK·RVT·RPVI 동시 취득(5월15일)



서울선정형외과 심정인 원장

경기도 화성시 대표축제 추진위원회... 심재만 공동위원장 선임(5월18일)



심재만 前 화성시 국장

여수경실련, 심재수 공동대표 취임 (5월22일)



심재수 여수총회장

세계 최초 찢어지지 않는 유기반도체 기반 트랜지스터 제작기술 개발(5월23일)



심현석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교수

### 지파종회 신임회장

전 충남대 심웅택 교수, 대전세종 충남종회 회장 취임(4월20일)



심웅택 회장

부사공종회 임원개선(4월22일)



심윤섭 신임 부사공종회장

### 대중회 인사발령(5월11일)

총무이사(내정)



심상익  
대중회 문화이사  
관리부장

문화이사 직대 위촉



심재월  
前 공무원연금 상록골프앤리조트 본부장  
연천유사(5월 24일)



심정연  
前 관악구녹색어머니연합회회장



심혁규  
공숙공·효창공파 총회이사

### 설치미술가 심영철 수원대 교수 전시회 오픈식(3월31일)



왼쪽부터 심수지, 심학섭, 심상익, 심익섭, 심상조 회장, 심언태, 심재철, 심익섭, 심대평 회장, 심영철 교수, 심경진, 심재섭 청심회장, 심용섭, 심양섭, 심규정, 심재안 등 일가분들과 미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 2023년 하반기 정기인사

<대전광역시>(4월 1일) ◇ 5급 승진 ▲ 과학협력과 심영두 ◇ 6급 승진 ▲ 운영지원과 심규열  
<기상청>(4월 2일) ◇ 4급 전보 ▲ 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지청장 심재면  
<충남 아산시>(4월 25일) ◇ 5급 ▲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5월 11일) ◇ 실·처장 ▲ 기획조정실장 심우섭  
<법무부>(5월1일) ◇ 검사 신규임용 ▲ 인천지검 검사 심성현

공지사항

1. 종보 구독자 1만 명 달성 협조요청

청송심씨중보는 국내외 30만 일가분들의 소식, 파종회 및 지역총회 행사, 제향봉행, 족보수단, 선조 사적지 소개, 장학사업 등의 기사로 격월 발행하는 청송 심문(沈門)의 소식 정보지입니다. 대중회는 연 찬조금 1만 원 이상 구독자 10,000명 이상 확보를 목표로 구독자 확대와 저명한 편집위원 위촉 등 모범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보 구독신청은 받으실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고, 아울러 종보 발전에 기여하실 일가분들의 많은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구독신청 : 전화 02) 2267-7857, 팩스 02) 2269-7755 또는 밴드, 페이스북》

2. 임원회비 제도 변경

금년도부터 임원(회장단, 이사 등)의 회비 명목을 없애고, 대신 '종보 찬조금' 또는 '장학 찬조금' 명목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임원회비 → 종보찬조금 또는 장학찬조금 명목으로 납부

☞ 종보 찬조금 송금계좌 : 농협 301-0134-7557-61 청송심씨대중회

☞ 장학기부금 계좌 : 농협 301-0256-8973-11 (재)청심장학회

각 찬조 2023.3.21 ~ 2023.5.15 (50만원이상)

■ 각 50만 원 이상 찬조 시 2회 사진게재



Table with 6 columns: Donor Name, Title, Amount. Includes 심재금 (대중회 고문, 장학찬조 50만원), 심재덕 (부산총회 회장, 장학찬조 200만원), 심현보 (㈜그로우건설 대표, 장학찬조 100만원), 심재일 (온양사복시정공파총회 회장, 종보찬조 100만원), 심익섭 (오산사복시정공파총회 회장, 장학찬조 300만원), 심무섭 (안효공파총회 회장, 춘향헌성금 160만원)



Table with 6 columns: Donor Name, Title, Amount. Includes 심상헌 (도총제공파원주총회 회장, 춘향헌성금 70만원, 종보찬조 50만원), 심상국 (봉익공파철원총회 회장, 종보찬조 50만원), 심대실 (용인일자, 장학찬조 200만원), 심재구 (인수부윤공파총회 회장, 춘향헌성금 90만원, 종보찬조 100만원), 심원철 (석촌공파총회 이사, 춘향헌성금 50만원), 심극택 (석촌공파총회 고문, 춘향헌성금 50만원)

종보찬조 2023.3.21 ~ 2023.5.15

Table listing donors and amounts. Includes 100만원 (온양공파사복시정공파총회 회장 심재일, 인수부윤공파총회 회장 심재구), 50만원 (도총제공파원주총회 회장 심상헌, 봉익공파철원총회 회장 심상국), 30만원 (심상우(광주), 원주. 황성총회(회장 심상열), 심능광(부회장), 심동섭(부회장)), 20만원 (심종보, 신천공파총회(회장 심 상경), 심순식(진주), 부평공파총회, 대구총회(회장 심 훈)), 15만원 (심재모(창원), 심재립(부산), 심홍보(창원)), 10만원 (영신상사(3월분), 심종복(사인공파회장), 심준보, 심국향(제주도), 심재순, 심중섭, 심한철(전주), 심운택, 심연촌(수원)), 5만원 (심재영, 심기섭(서울), 심전택, 심상왕, 심판구, 심상욱, 심용출, 심길수(진주), 심재경(춘천시종친회장), 심종택(평택), 심승보(완주우동총회장), 심문석(일산), 영신평드(4월분), 심상영(일산), 심재화(진주)), 심진식, 심상두, 심홍섭(서울), 심상훈, 심춘식(서울), 심만섭(함평), 심규석, 심진식(도정공파), 심원섭, 심의봉, 심보근, 심학섭(밀양), 심동섭(진주), 심경섭(합천), 심행섭(해운대), 심철보, 심인보, 심향래, 심완규, 심재정, 심명희(청송), 심행근, 심재상(합천), 심의보, 심철유 안성유사, 심훈섭, 심인섭(서울), 심봉섭(경기), 심재문(안양), 심영섭(수원부사공), 300만원 (오산사복시정공파총회(회장 심익섭)), 200만원 (심대실), 30만원 (용인총회(회장 심노진), 심상국), 20만원 (신천공파총회(회장 심상경), 부평공파총회 심문석), 10만원 (심진식, 심란수), 5만원 (심희섭, 심재호, 심동섭, 심상환, 심상규, 심정식, 심판섭(전주)), 3만원 (심언기, 심재희, 심재희), 1만원 (심준호(청송), 심준호(청송))

장학찬조

公 告

端午節祀 奉行 및 定期總會 開催

2023年度 安孝公(諱:溫) 端午節祀 奉行 및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하오니 많은 參席을 바랍니다.

◇ 다 음 ◇

- 1. 日時 : 2023年 6月 22日 (木) (午前 10時 - 端午節祀奉行, 11時 - 定期總會 開催)
2. 場所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01번지 (安孝公 墓前 및 齋室)
3. 主要 內容 (附議案件) 가. 2022年度 決算(案) 承認의 件 나. 2022年度 利益剩餘金 處分(案) 承認의 件 다. 2023年度 事業計劃(案) 承認의 件 라. 2023年度 收支豫算(案) 承認의 件
4. 其他 : 전국 각 지역 및 지파총회에서 단체로 참여하실 경우는 참석인원을 사전에 통보주시기 바랍니다. (031-253-8060, 253-8040 / 팩스 031-254-8066)

2023년 5월 22일 青松沈氏安孝公派宗會 會長 沈茂燮

제2회 한마음대회 일정 및 장소예고

■ 일시: 2023년 10월 21~22일 ■ 개최 예정지: 뿌리깊은 관향 청송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보류된 제2회 한마음대회는 금년 10월 23(월)일 이 시조 문림랑공 춘향제 봉행일이므로 21(토)~22(일) 청송에서 개최를 검토 중입니다

6월중에 기본계획안 마련, 회장단 회의 후 보고를 거쳐 확정되면 공식 발표 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오며 사전준비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대중회 02) 2267~7857, 2267~9339

춘향헌성금

Table listing donation amounts for Chunhyangheonseong. Includes 1st round (2,050,000), 2nd round (2,100,000), 3rd round (1,000,000), 4th round (900,000), and 4th round (4,550,000) with donor names and amounts.